

WEMIX GOLF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

순위	구단명	출전 선수 수	클럽 포인트	포인트 차
1 (-)	CJ	3	2만6248.45	-
2 (-)	Webcash Group	3	2만5238.56	1009.89
3 (-)	우리금융그룹	1	2만4766.46	1481.99
4 (-)	금강주택	5	2만4676.05	1572.40
5 (-)	하나금융그룹	2	2만4597.10	1651.35
6 (▲2)	DB손해보험	2	2만3669.32	2579.13
7 (▼1)	무궁화신탁	5	2만3460.99	2787.46
8 (▲1)	케이엠피제약(주)	3	2만2804.71	3443.74
9 (▼2)	(주)우성종합건설	5	2만2741.17	3507.28
10 (-)	대보건설	2	2만1048.64	5199.81
11 (-)	Volvik	3	2만609.54	5638.91
12 (-)	SK telecom	1	2만224.01	6024.44
13 (▲3)	HUSEM	2	2만134.42	6114.03
14 (▲1)	BRIC	3	2만25.71	6222.74
15 (▼2)	NH농협은행	3	1만9777.30	6471.15
16 (▼2)	ZIVENT	1	1만9567.87	6680.58
17 (-)	COWELL	2	1만7893.05	8355.40
18 (-)	에도가	4	1만7067.31	9181.14
19 (-)	신한금융그룹	0	9696.33	1만6552.10

DB손해보험 챔피언 2명 보유
위믹스 구단 랭킹 6위로 도약

DB손해보험이 문도엽의 우승으로 '위믹스 구단 랭킹' 6위로 올라섰다.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종료 후 위믹스 구단 랭킹 8위로 내려앉았던 DB손해보험은 25일 끝난 'DGB금융그룹 오픈'에 문도엽과 서요섭, 두 명이 출전해 구단 별 포인트 1000점과 우승을 차지한 문도엽이 1000점, 8위에 랭크된 서요섭이 310점을 각각 보태며 누적 2만3669.32포인트로 지난주 대비 2계단 상승한 6위를 기록했다.

DB손해보험은 '바디프랜드 팬텀로보 군산CC 오픈', 'LX챔피언십' 우승자 서요섭에 이어 DGB금융그룹 오픈 우승자 문도엽까지 2명의 챔피언을 배출하며 올시즌 우리금융그룹, CJ에 이어 3번째로 2명의 챔피언을 보유한 구단이 됐다.

위믹스 구단 랭킹은 CJ가 2만6248.45포인트로 1위, 웹캐시그룹이 2만5238.56포인트로 2위, 우리금융그룹이 2만4766.46포인트로 3위에 자리했다.

지난주까지 웹캐시그룹과 772.9포인트 차로 1위 자리를 위협받던 CJ는 DGB 금융그룹 오픈에서 구단 별 포인트 1000점에 공동 3위 배웅준이 485점, 공동 33위 최승빈이 102.5점, 공동 55위 이재경이 22점을 각각 획득하며 누적 2만6248.45포인트로 선두 독주를 이어갔다.

휴셈은 구단 별 포인트 1000점에 공동 3위 윤성호가 485점, 공동 15위 백석현이 231점을 보태 누적 2만134.42포인트로 지난주 대비 3계단 상승한 13위를 마크했다. 위믹스 구단 랭킹은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펼쳐지는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이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우즈 아들 찰리, 4언더 개인 최소타 갈아치워

그야말로 '부전자전'이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7)의 아들 찰리(13·이상 미국)가 4언더파를 쳐 자신의 공식대회 개인 최소타 기록을 세웠다.

찰리는 2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인근 미션 릿 리조트 골프 코스(파72)에서 열린 미국주니어골프 대회 노타 비게이3세 주니어 내셔널 챔피언십 최종 2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미국 골프매체 골프 위크는 "68타는 찰리가 공식 대회에서 적어낸 '라이프 베스트 스코어'"라고 전했다.

아버지인 우즈가 직접 캐디를 맡은 가운데 만들어진 기록이라 더 뜻 깊었다. 찰리는 이틀간 함께 4오버파 148타로 남자 12~13세 부문에서 공동 4위에 올랐다. 1위는 2라운드에만 6타를 줄여 이틀간 7언더파 137타를 친 대런 저우(홍콩)에게 돌아갔다.

LPGA 레전드 vs 현역 스타 우정의 샷 대결



포섬 매치 시작에 앞서 박세리, 박현경, 안니카 소렌스탐, 임희정(왼쪽부터)이 10번 홀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박세리는 임희정과 짝을 이뤘고, 소렌스탐은 박현경과 호흡을 맞췄. 두 팀 모두 나란히 9개 홀에서 1오버파를 적어냈다. 인천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필드에 뜬 박세리, 나눔 더하고 온기 채우고

LG전자 박세리 월드매치 인천 개최 소렌스탐·김효주 등 스타 한자리에 오초아-박민지 조 우승 기부금 1억 "열악한 훈련 환경 개선 계기 되길"

박세리(45)와 안니카 소렌스탐(52·스웨덴), 로레나 오초아(41·멕시코) 등 한 시대를 풍미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레전드들과 한국을 대표하는 현역 여자골프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정의 샷 대결을 펼쳤다.

박세리 희망재단이 주최하고 LG전자가 후원한 'LG전자 박세리 월드매치'가 26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렸다.

환경 보전과 주니어 골퍼를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친선 매치에는 LPGA 레전드들 대표해 박세리, 소렌스탐, 오초아와 함께 로라 데이비스(59·잉글랜드)와 크리스티 커(45·미국), 정야니(33·대만) 등 6명의 레전드들이 참가



'LG전자 박세리 월드매치' 포섬 매치에서 우승한 로레나 오초아(왼쪽), 박민지(오른쪽)가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언더파를 합작한 오초아-박민지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환경보전과 주니어골프 육성기금 1억 원을 전달하는 기쁨을 누렸다. 인천 | 주현희 기자

했다. 현역 선수로는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김효주(27)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간판선수들인 박민지(24), 박현경(22), 조아연(22), 임희정(22), 황유민(19)이 출전했다.

전반 9개 홀 포볼(2인 1조로 팀을 이

뤼 각자의 공으로 경기에 더 좋은 성적을 팀 성적으로 삼는 방식), 후반 9개 홀 포섬(2인 1조 한 팀이 1개의 공을 번갈아 치는 방식)으로 진행된 우정의 샷 대결은 추첨을 통해 레전드-현역 선수들이 짝을 이뤄 펼쳐졌다.

최고령인 데이비스와 최연소인 황유민이 한 팀이 됐고, 오초아는 박민지와 호흡을 맞췄다. 소렌스탐과 박현경, 커와

김효주, 정야니와 조아연, 박세리와 임희정이 한 팀을 이뤘다.

3년 만에 박세리와 함께 대회를 치르게 된 소렌스탐은 "한국에 올 때마다 기분이 좋다. 박세리 희망재단의 좋은 취지에 뜻을 함께 하고자 이번 대회에 참여

했다"며 "전 세계 골프계의 롤 모델인 박세리가 초청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회를 주최한 박세리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 골프 인기가 올랐지만 반대로 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할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고 느꼈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더 많은 경험을 갖게 해주고 싶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경기 전 '세리키즈' 팀을 위한 레전드들의 레슨이 진행돼 골퍼 유망주들에게 색다른 경험도 선사한 이번 대회는 전반 포볼 매치에서는 전체 선수들의 버디 수에 따라 기금이 적립되고, 후반 포섬 매치에서는 우승팀 이름으로 1억 원의 기부금이 조성됐다.

포섬 매치 우승은 2언더파를 합작한 오초아, 박민지 조가 차지했다. 전반 포볼 매치에서 총 19개의 버디가 작성돼 1900만 원의 기부금이 마련됐고, 대회 주최 측인 박세리 희망재단이 3100만 원을 더해 총 5000만 원의 기부금을 추가로 조성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최운정, 1타가 모자라...시즌 최고 3위 마무리

LPGA 아칸소챔피언십 최종 16언더 1타 부족해 연장 불발...티미쿰 우승 7년 만에 통산 2승 달성 아쉽게 놓쳐

7년 만에 투어 통산 2승에 도전했던 최운정(32)이 3위를 차지했다. 딱 1타가 부족해 연장에 합류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하지만 투어 14년차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최운정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파71)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최운정

에 데뷔한 최운정은 2014년 한국인 최초로 동료 선수들이 선정한 '모범선수상'을 수상한 주인공. 2015년 마라톤클래식에서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해 12월 4년 연상의 판사와 결혼한 뒤 올해 안정적 인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 대회 3위는

230만 달러·32억 7000만 원)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를 기록했다. 6타를 줄여 사흘간 합계 16언더파 197타로 3위에 랭크됐다.

2009년 LPGA 투어에 데뷔한 최운정은 2014년 한국인 최초로 동료 선수들이 선정한 '모범선수상'을 수상한 주인공. 2015년 마라톤클래식에서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해 12월 4년 연상의 판사와 결혼한 뒤 올해 안정적 인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 대회 3위는

을 4월 디오 임플랜트 LA 오픈 공동 6위를 넘어서는 시즌 최고 성적이다.

최운정은 "8월 AIG 위민스 오픈 때 내가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한 뒤 한국에 돌아야 가족들, 신랑과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에너지를 받았다"며 "지난주부터 샷감과 퍼팅감이 살아났고, 신랑도 와서 응원해주고 해서 그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올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루키' 아타이 티미쿰(태국)이 교포 다니엘 강(미국)과 17언더파 196타 동타로 정규라운드를 끝낸 뒤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시즌 2승을 수확했다. 15번(파3)

홀에서 열린 첫 연장에서 파로 비긴 뒤 16번(파4) 홀에서 버디를 낚았다. 우승상금 34만5000달러(4억9000만 원)를 챙긴 티미쿰은 신인상 포인트 150점을 더해 1299점을 쌓으며 이번 대회를 12위로 마친 최혜진(24·1161점)을 138점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질주했다.

척추종양 치료를 마치고 지난달 CP 위민스 오픈을 통해 필드에 복귀한 다니엘 강은 준우승 인터뷰에서 "내가 다시 플레이 하고,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난 여기에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도현 기자

한국선수들 3승 보냈지만...미국, 프레지던츠컵 9연승

마지막 날 싱글플레이서 '유종의 미' 김시우 인터내셔널팀 유일 3승 거둬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 날 싱글 매치를 레이에서 3승을 보냈지만 미국의 프레지던츠컵 9연승을 저지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인터내셔널팀 소속 한국 선수 4명이 26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웨일 할로 클럽(파71)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 마지막 날 싱글 매치 플레이에서 3승1패로 선전했다. 김시우(27)와 임성재(24)가 각각 저스틴 토마스와 캐머런 영을 1홀 차로 따돌렸고, 이경훈(31)도 빌리 호셜을 3홀 차로 제쳤다. 막내 김주형

(20)이 맥스 호마에게 1홀 차로 패한 게 아쉬웠다.

마지막 날 싱글매치 12게임의 결과까지 합산한 최종 점수는 미국팀 17.5, 인터내셔널팀 12.5. 미국은 2005년부터 9연승을 달리며 통산 전적 12승1무1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다.

4명이 참가해 인터내셔널팀 12명 중 가

장 많은 선수를 배출한 한국은 이번 대회 인터내셔널팀 승점 12.5점의 절반인 6.25점(2인1조 결과는 파반 승점의 절반으로 계산)을 만들어내며 분전했다. 김시우가 3승1패로 인터내셔널팀에서 유일하게 3승을 거둔 선수가 됐고 임성재 2승1무2패, 이경훈 2승1패, 김주형 2승3패를 각각 마크했다. 미국팀에서는 조던 스피스가 홀로 5승을 쓸어 담았고, 호마도 4전 전승을 수확했다.

다음 프레지던츠컵은 2024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